

오래된 미래 인문 공부

1. 인문학

인문학은 일반적으로 인간(humanitas)과 교육(paideia)의 의미로 사용되어 왔으며 오늘날의 인문학은 언어(言語), 역사(歷史), 철학(哲學)의 고전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고전(古典)은 인류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보편적인 지적 유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적 유산은 역사와 소통하고 동시대와 소통하기 위해서 마치 언어를 익히듯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부는 또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토대가 됩니다. 미래는 '오래된 미래'(ancient Future)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 공부는 고전지식을 습득하는 교양학이 아니라 지적 유산을 재구성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창조적 공부(工夫)입니다. 따라서 모든 고전독서는 먼저 텍스트(text)를 읽고, 그 텍스트의 필자(筆者)를 읽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독자(讀者) 자신을 읽음으로써 텍스트를 뛰어넘는 삼독(三讀)이어야 합니다.

2. 문사철(文史哲) 시서화(詩書畫)

역사적으로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으로서의 인문학은 크게 문사철(文史哲)과 시서화(詩書畫)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사철은 개념적(概念的) 어법(語法)을 기초로 하는 문학서사(文學敘事) 영역입니다. 논리적이고 추상적입니다. 시서화는 물론 음악도 포함되지만 문사철과는 다른 기호(記號)를 사용하는 감성적 영역입니다.

인문 공부는 이 두 영역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학서사는 그것의 동일성(同一性) 논리가 지적되고 시서화는 그것의 주관적 해제주의가 지적됩니다. 특히 최근에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영상서사(映像敘事)는 그것의 탁월한 세계인식 기능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인간소외(人間疏外)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인문 공부는 문사철의 추상력과 시서화의 상상력을 결합하는 유연한 인식 틀을 만들어내고 과거와 미래, 이성과 감성, 주체와 대상을 아우르는 이른 바 '인문학적' 관점을 키우는 것이어야 합니다.

3. 인문학적 관점

인문학적 관점의 기본은 '인간'입니다. '사람'이 중심에 놓여야 합니다.

『논어』의 지(知)는 "인간을 아는 것(知人)"입니다. 르네상스는 인간의 발견입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와 인간의 위상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문맥(文脈)을 거쳐 왔습니다. 인문학은 모든 역사적 단계에서 인간을 가두고 있는 문맥을 벗어나는 탈 문맥이 그 본령입니다.

오늘날의 인문학적 관점은 근대사회의 인간이해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나아가 근대문맥(近代文脈) 자체를 벗어나는 탈근대(脫近代)의 관점을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대사회는 한마디로 인간의 정체성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인간을 타자화(他者化)하고 자연을 대상화(對象化)하는 존재론(存在論)의 문맥에 갇혀 있습니다. 근대사의 전개과정이 보여주는 거대한 물질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위상은 오히려 소외(疏外)되고 있습니다. 인문학은 소외된 인간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인간의 '얼굴'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입니다.

4. 인간관계

인간은 '관계(關係)'로서 존재합니다. 인간관계는 인간의 존재형식(存在形式)입니다. 현대물리학의 급속한 발전이 입증하는 바에 의하면 세계의 근본적 구조는 '관계(關係)'입니다. 물질은 배타적 존재가 아니라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 확률과 가능성으로 존재합니다. 생명과 생명계(生命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갇혀 있는 근대문맥의 인간은 배타적 존재이며 대상화(對象化) 타자화(他者化)의 주체입니다. 『논어』의 화동담론(和同談論)은 근대문맥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근대사회를 일관한 동(同)의 논리는 결국 지속가능하지 않는 패권적(霸權的) 질서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소외된 인간의 위상을 바로 세우려는 인문학적 과제가 탈근대 담론을 기본으로 삼고 있는 까닭이 이와 같습니다.

5. 오래된 미래와 21C

동양학의 인문학적 전통에는 '관계'에 대한 성찰이 도처에 있습니다. 『주역』의 독법이 그렇고, 『논어』와 『맹자』의 담론이 그렇습니다. 서도(書道) 역시 관계를 미(美)의 준거로 삼고 있습니다.

현대철학 역시 주체의 해체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주체(主體) 대상(對象) 진리(眞理)에 대한 근본적 담론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존재론으로부터 관계론으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접속(connection)을 존재와 운동을 읽는 기본적 '인식 틀'로 승인하고 존재성(영토, 문맥)을 벗어나는 탈주(desertion)와 유목주의(nomadism)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공존의 철학을 넘어, 차이야말로 자기가 변화할 수 있는 감사한 기회로 받아들여야 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러한 유목주의의 전형이 곧 상선약수(上善若水)의 담론입니다

6. 「나의 대학시절」

20년의 수형생활은 나 자신을 발견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관계'의 의미를 깨달은 「나의 대학시절」이었습니다.

나의 정체성(Identity)이란 완성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하여 사후에 구성

되는 것이며 본질에 있어서 정체성은 사회성(Sociality)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쁨과 아픔은 관계로부터 오는 것이며, 지해도 능력도 개인의 내부에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타자화, 대상화의 시절에서 시작하여 이해와 공존 그리고 변화와 개조, 관계건설이라는 탈근대의 전 과정을 걸어 간 대학시절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7. 가장 먼 여행

삶은 여행입니다. 떠나는 것이며 만나는 것이며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동안에 하는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라고 합니다. 냉철한 이성(cool head)보다는 따뜻한 가슴(warm heart)이 더 어렵기 때문에 먼 여행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먼 여행은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입니다. 발은 변화이며 숲이며 삶의 현장입니다.

머리에서 가슴을 거쳐 발에 이르는 이 긴 여정이 우리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긴 여정을 견디기 위해서는 과정(過程) 그 자체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自己)의 이유(理由)로 걸어가야 하고 자부심(自負心)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변방의 자유와 창조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과 '함께'하여야 합니다.

인문학의 언어를 고른다면 그것은 단연 '석과불식(碩果不食)'입니다. 석과불식은 희망의 언어입니다.